

2021년 세계시민교육 중앙연구회 분과연구모임 결과 보고서

분과연구모임명	Viva la vida! (인생이여 만세!)
대표교사 (소속)	이수정(연무중앙초등학교)
회원교사 (소속)	박애경(서울오류남초등학교), 표정현(안주청완초등학교), 이규준(경남백전초등학교)

추진 일정	수행 내용	관련 사진
5월	<p>▶ 혐오의 양상과 개념 이해하기</p> <p>1) 우리 사회 및 교실 속 혐오 양상 찾기 : 자료(책, 사진, 기사, 광고, 영상, 미디어 속 댓글, 우리의 일상 및 교실상황) 수집하여 밴드에 공유</p> <p>2) 자료 내용에 대한 토론(포토보이스 기법 활용) (밴드를 통한 자료 수시 업로드/ 2주에 1회 줌으로 회의)</p>	
6월		
7월	<p>▶ 독서토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혐오없는 삶 <p>▶ 수집 자료에 대한 분류,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별 분류작업 	
8월	<p>▶ 독서토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혐오, 교실에 들어오다. <p>▶ 교육과정 분석: 관련 교과 성취기준과 연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연계 자료 추출 및 적용방안 연구 	
9월	<p>▶ 수업 자료개발: 수업지도안, 수업 활용 자료, 온라인 활동 자료</p>	
10월	<p>▶ 교육활동 실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급경영 적용 사례 - 독서연계 활동 적용 사례 - 국어과 연계 적용 사례 <p>▶ 피드백 공유 및 확장 가능성 탐구</p>	

연구산출물	
산출물 형태	결과보고서
내용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혐오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관련 연구 일정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의 진행 - 연구 방법 ● 교사들의 혐오와 차별 교육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혐오의 정의와 범위 - 사례 분석을 통한 개념이해 - 혐오의 배경과 원인 이해 ● 토의 결과 적용과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실에서 발견한 연관 교육 활동 - 단계별 학습 프로그램 구상 및 적용 ● 연구에 대한 결론 및 연구에 대한 소감 공유

연구 소회 및 기타 의견

‘혐오’라는 주제는 분명히 다루어져야 하고 연구되어야 하는 주제임에는 분명하지만 그 범위를 규정하고 원인을 규명하는 일 그리고 그 원인을 찾아 올바른 대항표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 연구를 통해 경험할 수 있었다. 공식적인 연구는 끝나겠지만 분과 모임에 참여한 우리들에게 이는 또 다른 시작일 것이다.

목 차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II. 연구 일정 및 방법
 - 1. 연구의 진행
 - 2. 연구 방법
- III. 교사들의 혐오와 차별 교육 인식
 - 1. 혐오의 정의와 범위
 - 2. 사례 분석을 통한 개념이해
 - 3. 혐오의 배경과 원인 이해
- IV. 토의 결과 적용과 공유
 - 1. 교실에서 발견한 연관 교육 활동
 - 2. 단계별 학습 프로그램 구상 및 적용
- V. 결론/ 참고문헌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은 우리 사회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혐오의 감정을 더욱 직접적이고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중국인에서 신천지 교인, 개신교, 대구 지역 등 특정 공동체나 지역에 대한 혐오가 코로나의 확산에 따라 이동해가다가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혐오가 이를 대신해 자리 잡았다. 요양병원, 이태원 젊은이들의 클럽 등에서 확진자가 등장하며 혐오의 대상으로 이동하였고, 확진자들은 동선이 밝혀짐에 따라 마녀사냥을 당하기도 하였다. 최종렬은 팬데믹과 관련하여 참여하게 드러나는 우리의 혐오를 우리 사회 '공동체주의적 가치의 민낯'이라고 표현하며 소수자에 대한 혐오 릴레이 현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최종렬, 2020: 21).

그러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혐오와 차별이라는 용어의 본격적인 사용은 2013년 이후 '일간베스트게시판'(일베)라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소수자에 대한 조롱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 회자되면서 본격적으로 소수자에 대한 편견, 차별, 폭력 등을 일컫는 말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홍성수, 2019: 192). 이후 2016년 강남역 여성 혐오 살해사건이나 장애인 교육시설 설립으로 인한 혐오시설 기피 등 혐오 현상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혐오 표현은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 지역, 인종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게 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차별과 폭력을 유도하여 차별을 정당화하고 조장 및 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으로 정의된다. 국제법에서도 혐오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불합리한 비난과 증오의 감정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혐오는 단순한 편견과 다르며 소수자 집단을 증오하고 차별하려는 감정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

물론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는 사회 속에서 젠더, 계층, 세대, 인종 등 여러 분야에서 소수자를 배제하였고 이들에 대한 혐오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그동안 다수자의 영역에 속했던 대다수의 시민들이 언제든지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음으로 인해 혐오의 문제가 더욱 우리에게 가까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깨달음은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 '연대(solidarity)'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게 되기도 한다. 세계시민교육에서는 전통적인 문화다양성, 평화, 인권 등의 가치와 더불어 더욱 심화되고 세분화된 가치들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는데, 팬데믹 상황에서 연대는 지속가능성과 더불어 최근 가장 강조되는 가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팬데믹 상황은 어느 한 지역이나 집단이 감염되었을 경우, 다른 지역에까지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글로벌 사회 특징을 공간적으로 더욱 강조함으로써 특정 지역이나 집단의 생존이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연대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혐오와 차별은 사회를 반영하는 학교에서도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장난이라는 이름으로 소수자에 대한 은근한 조롱과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이 교육 현장에 존재한다. 다문화 학생이나 장애 학생에 대한 은근한 차별과 배제와 같은 기존의 차별을 넘어 최근 양성평등 교육이 강조되면서 나타나는 페미니즘에 대한 혐오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문제는 학교가 우리 사회에서 차별을 해소해야 할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모든 학생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실천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학교 안에서도 혐오와 차별이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면 사회적으로 이와 관련된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학교에서의 이러한 혐오와 차별 현상에 대한 적절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이혜정 외, 2019: 9)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는 혐오와 차별, 배제의 논리를 교육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교실 속 혐오를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탐색하고자 한다. 즉, 교실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혐오의 감정과 표현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여러 혐오와 차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수업에 도입하는 방법을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교사들이 사회의 혐오와 차별이 나타나는 양상을 인식할 수 있는 틀을 이해하고 교육에 도입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들을 구상한다. 교사들의 이해의 틀은 다양한 문서들 뿐 아니라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직간접의 사례들을 통해 우리 사회 혐오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에 대한 여러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다양한 관점을 가지하고자 하였으며, 다양한 자료와 대비되는 공통의 자료를 활용한 토의를 위해 독서토론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혐오와 차별이라는 막연하고 불명확한 개념을 현장에서 교사들이 찾아가는 과정을 공유함으로써 교육에 일상 생활의 적용, 새로운 개념에 대한 이해와 범주화가 진행되는 양상을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사들이 일정 시간 함께 논의하고 토론한 개념과 방법을 수업에 적용하는 과정은 교사들 간의 지속적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공유를 위한 공동체 활성화 모델로서의 가치 또한 가진다고 할 수 있다.

II. 연구 일정 및 방법

1. 연구의 진행

가. 교사연구회 구성과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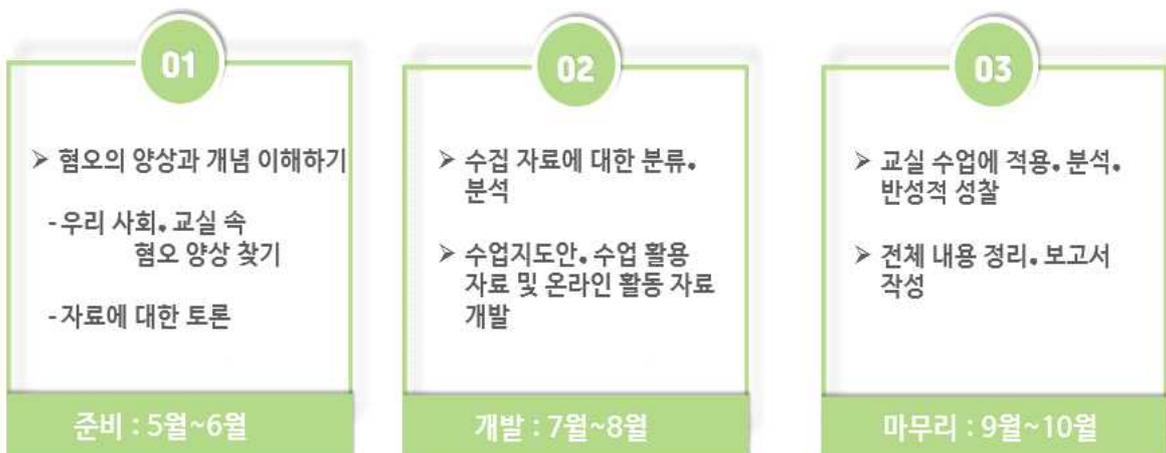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연구회 구성원들은 세계시민교육에 관심을 가진 교사들이 모인 중앙연구회의 특징을 살려, 전국 여러 곳의 교사들이 모여 물리적으로 멀리 있는 경우에도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연구 공동체를 실천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구성원들은 전국 각 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이며,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연구 활동의 공유를 통해 상호간에 연구 활동에 대한 이해가 깊은 회원들로 구성되었다. 연구 분과모임의 구성원과 운영 계획은 다음과 같다.

<표 II-2> 교사연구회 분과모임 구성

연구회원	학교급/ 학년	지역
박애경	초등/ 3,5학년 교과	서울
이수정	초등/ 5학년 담임	충남
표정현	초등/ 3학년 담임	전북
이규준	초등/ 6학년 담임	경남

<표 II-3> 분과모임 운영 계획

연구 일시 : 2020.04.20.~10.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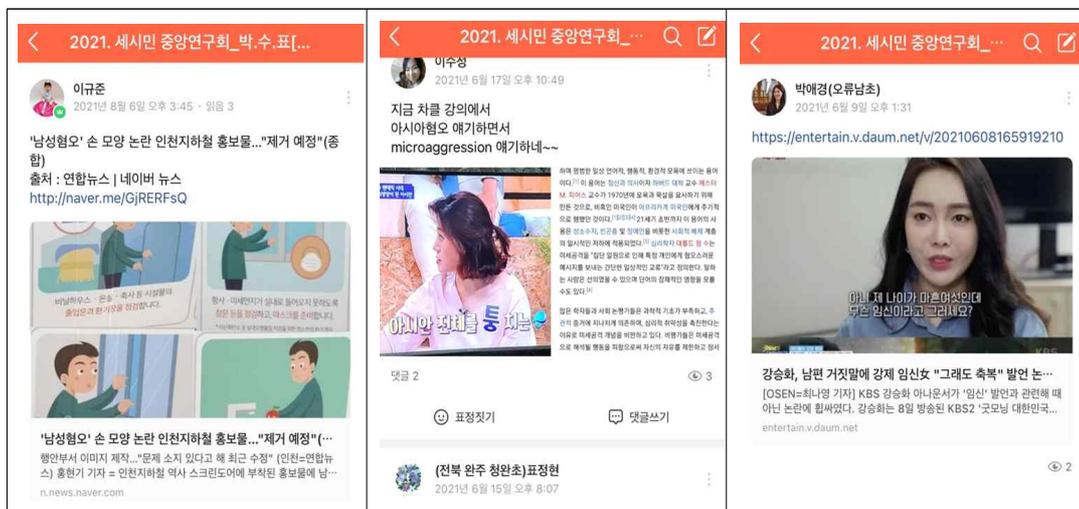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회 구성원의 직, 간접 경험 및 자료 표집법과 토론을 통한 개념 및 사례 분석을 시도하였다. 경험과 자료 표집을 위해서는 연구회원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온라인 인프라를 이용해 연구 기간 동안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자료를 공유하였고, 격주로 온라인 토의를 통해 해당 자료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혐오와 차별에 대한 견해를 제공할 공통 도서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독서토론을 통해 개념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자 하였다.

이 세 가지 방법은 각기 독립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사용되었다. 일정 기간에 격주로 진행된 온라인 회의에서 그동안 표집된 경험과 자료를 토대로 이야기를 진행하며, 구성원들 간의 일정을 조절하여 공통 도서 선정과 이에 대한 토론 또한 전체적인 주제의 논의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가. Band를 활용한 경험 및 자료 표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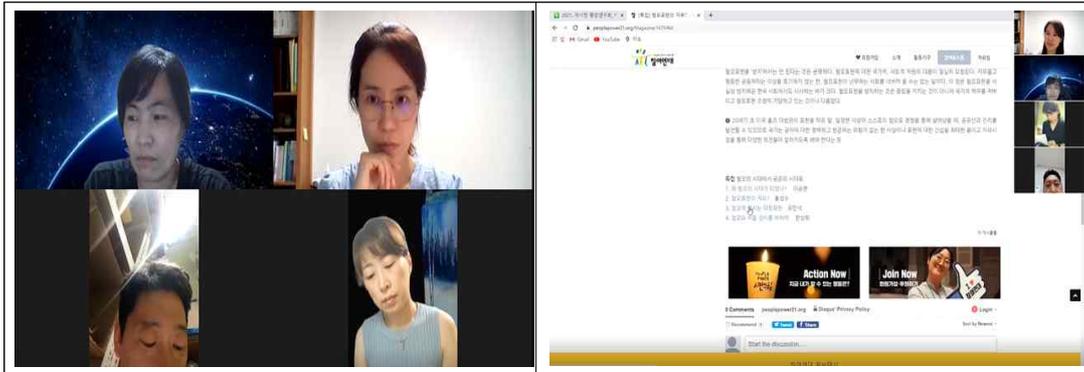


[그림 II-1] Band 활용 자료 표집과 공유

나. Zoom을 활용한 온라인 회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오프라인 회의 진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모든 토론은 zoom을 활용한 온라인으로 이루어졌다. 격주로 진행된 온라인 토론은 그동안 밴드를 통해 수합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각자 올린 자료에 대하여 혐오 표현과 연관되었다고 생각한 이유 및 해당 자료에 대한 견해를 공유하고 이에 대해 다른 구성원들과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회 구성원들 개인의 교육 경험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나 개념을 정립하는 데 반영되기도 하였다. 다양한 종류의 자료를 바탕으로 토론이 진행되면서 온라인 회의의 장점을 활용하여 각자가 선택한 자료를 서로 쉽게 공유하며 토론을 진행할 수 있었다. 시공간적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어 전국 각기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는 연구회 구성원들이

자주 만나 토론이 가능했던 반면, 연구가 진행되는 내내 한 번도 대면으로 워크숍을 하지 못해 더욱 심화된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기회가 없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림 II-2] Zoom 온라인 회의

다. 독서 토론

연구회에서 혐오와 차별을 이해하기 위해 선정한 도서는 ‘혐오없는 삶’(바스티안 베르브너, 이승희 역, 2020)과 ‘혐오, 교실에 들어오다-학교 안 혐오 현상의 실태와 대책’(이혜정 외, 2019)이다. ‘혐오 없는 삶’은 혐오 표현과 혐오의 감정이 등장하는 원인에 대해 국제적인 현상으로서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읽어보고자 하였다. ‘혐오, 교실에 들어오다’는 한국 사회 교육현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혐오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해 교육 관련 전문가들이 진단한 문제점과 해결 방법에 대한 실마리를 공유하고자 공통도서로 선정하였다.

독서 토론은 학교 현장에서도 학생들 뿐 아니라 교사들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특히 본 연구의 주제와 같이 각자 생각하기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고, 명확하게 드러나기 어려운 주제의 경우, 연구회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하기 위한 공통된 소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위 두 권의 책을 통해 독서 토론을 진행하였다. 책을 통한 독서 토론의 간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혐오없는 삶> 바스티안 베르브너, 이승희 역(2021). 서울:판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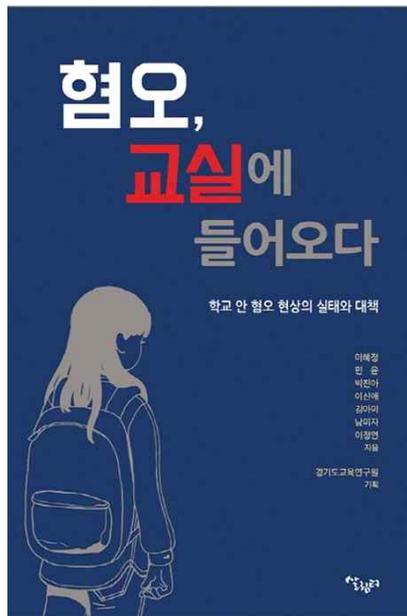
교사A: 결론은 접촉을 통해 즉, 직접 만나서 대화를 통해 서로에 대한 혐오를 줄여갈 수 있다는 것이 작가의 의도인 것 같다. 굽직한 차이점 속에서 공통점을 찾다보면 더 이상 혐오할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라고 생각한다.

교사 B: 바른마음이라는 책과 연계가 많이 된다. 바른마음은 이론, 혐오없는 삶은 사례 중심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작가의 문제의식 자체가 좋아서 공감을 많이 했다. 특히 양극화에 대한 혐오가 인상적이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서로 얘기가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강화되는 분위기 같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그것을 혐오하는 분위기가 역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그렇게 크게 기대에 부응하진 못했던 책이기도 하다. 접촉 이론은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난민 문제의 경우 모르기 때문에 더 두려워하고 혐오한다는 것, 집단에 대해 가상이나 상상으로 만들어 낸 이야기가 많다는 것이 그 예이다. 한편으로 안 좋은 것들이 훨씬 강하게 알려지는 현상은 미디어의 책임이기도 하다. 많은 부분들이 접촉을 통해 사람 대 사람으로 느끼게 되면 혐오를 덜 느끼게 된다. 그렇다면, 교실에서는 어떻게 접촉을 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교실 속에서 혐오를 줄이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간접 접촉 방법이 가능할 것 같다. 따라서 책, 미디어 등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다. 즉, 접촉을 통해 혐오의 생각을 줄이기 위해 간접자료를 사용한다는 식의 접근 말이다. 이런 식으로 접촉이론을 교실 속에 들여올 수 있겠다.

교사 C: 사례중심 특히, 르포 부분에서 팩트폴니스를 이용한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When it bleeds, it leads. 사람은 결국 우리이다. 우리와 우리가 아닌 선을 긋는 것, 내 소속을 찾으려고 하는 것. 특히 사람이 개인 대 개인보다 사람이 집단이 되었을 때 혐오가 더 커진다는 5장의 제비뽑기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222쪽 사고실험처럼 도시가 클수록 인종적 사회적 분리도 더 크다는 표현 역시 기억에 남는다. 따라서,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정치단위를 새로운 정체성에 적용하고 다양한 정체성을 정치 단위에서 적용하는 방식 말이다.

<혐오, 교실에 들어오다-학교 안 혐오 현상의 실태와 대책> 이해정, 민윤, 박진아, 이신애, 김아미, 남미자, 이정연(2019). 서울:살림터



교사 D: 책을 읽으면서 좀 불편했다. 우리 때도 있었는데, 사회적 감수성이 높아져서일까? 가치관이 그래서일까? 무엇인가 바뀌었기 때문에 문제의식이 생긴 걸까? 대체로 학교폭력과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했고, 결론적으로 피해자 중심에서는 모든 것이 혐오적 표현이다. 95쪽. 실제로 수행 평가에서 똑같은 잣대를 대었을 때 과연 이것인 공정한 것일까?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것은 결국에는 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의 문화다양성 그리고 인권 쪽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이 책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 진술한 것 같다. 하지만, 교육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제시한 것은 좋았다. 책 속의 내용들을 참고하고 각 교실의 사정에 맞게 변형해서 사용하면 재밌겠다고 생각했다.

교사 B: 혐오의 범위에 대해 다양하게 보았는데 교실 안의 문제는 대부분 젠더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성차별, 성별에 따른 문제들, 이런 표현들이 제일 큰 부분인 것 같다.

교사 A: 학생 개인의 삶을 끌어들이는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즉, 개인의 문제, 개인의 경험으로 들어가야 학생들이 집중한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생각해보면 어떻게 학생들의 경험을, 학생들의 삶을 끌어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고 결국 학생들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결국은 개인의 삶이다. 그 개인의 삶을 수업으로 끌어들이고 그것을 내면화시키는 것이 답이 아닐까 생각했다. 하나의 사건이나 현상을 그냥 단순히 표면적으로 해석하도록 하는 수업이 아니라 학생 개인의 생각을 풀어내도록 하고, 역사적 흐름 또는 맥락 속에서 해석하고, 연계하여 실시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고 생각했다. 너무 어렵지만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인 것은 분명하다.

교사 C: 학교폭력과 구분해서 책을 분류하는 것이 사실 제일 힘들었다.

Ⅲ. 교사들의 혐오와 차별에 대한 인식 분석

1. 혐오의 정의와 범위

가. 개념의 범주 명확화

교실 속 혐오와 차별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면서 가장 어렵게 느껴졌던 것은 개념의 범위와 의미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었다. 연구회 구성원들이 다양하게 공유한 자료들은 듣기만 해도 이른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명확한 혐오 표현도 있지만 은근한 편견이나 차별을 드러내는 표현이나, 의도하지 않게 상대를 불편하게 만드는 표현들도 다수 포함되었다. 예를 들어 이혼녀를 배려한다고 생각하며 주변에서 오히려 당사자를 불편하게 만드는 발언들이나 특별한 의도 없이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예쁘다, ~하게 생겼다 등의 외모 관련 표현들도 혐오나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을 내포하고 있는가, 따라서 수업에서 혐오 표현의 범주에 포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교사 A: 교장선생님이 선생님이 예쁘니까, 선생님이 힘이 세게 생겼으니까, 이 일 좀 하세요 하고 이야기하는거, 이혼녀한테 혼자 사는 거 힘들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 불편해.

교사 B: 우리가 지금 혐오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사례는 차별이나 편견이 될 것 같아서, **우리가 혐오의 범위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교사 A: 한국 사회에서 이혼녀에게 하는 이야기들, 혼자보다는 둘이 더 좋다는 전제하에 자꾸 누구 만나봐라, 결혼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좋은 의도라고 해도 듣는 **사람한테 불편하고, 편견이 들어있으니까 이걸 혐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교사 B: 그럼 이걸 단순한 편견과 뭐가 다를까? 듣는 사람에게 불편하면 이게 혐오표현까지 갈 수 있을까?

교사 A: 그럼. 그건 그 사람한테는 공격으로 간 거잖아

교사 B: 그럼 혐오표현의 규정, 정의를 상대방에 대한 공격적인 표현으로 내릴 수 있을까? 우리가 비슷하다고 연관된다고 올린 자료들을 보면 어디까지가 혐오인지 불분명해. **편견이나 차별이라는 말과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이 용어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교사 A: 어렵네,

< 2021.6.17. 2차 온라인 토론 중에서 >

나쁜 의도는 없지만 듣는 사람에 대한 편견이 포함되어 있고, 이로 인해 상대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해당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일부 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김지혜(2019)는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혐오와 차별의 감정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표현을 통해 공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교실 속 혐오에 대해 더욱 섬세하게 살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유되었다.

교사 C: 제가 올린 교육부 자료 한번 보시면, 혐오가 남자가 이런 일로 올면 되겠어, 여자는 이래야지 하는 표현도 다 혐오표현이 될 수 있다고 해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불쾌하다면 혐오표현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는 그게 과연 혐오표현일까 하는 생각도 드는 건 사실이에요.**

교사 B: 불쾌한 감정이 들어간 비교적 강한 감정이니까 이 정의에 의하면 혐오네..

교사 D: 그런데 범위가 좀 넓다는 생각? 수업할 때도 소수자에 대한 차별, 편견이 전반적인 것이 다 들어가 버리면 어디까지 혐오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교사 C: 차별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돼. 결국 혐오는 **차별적인 용어에서 나오는 거잖아.** 근데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다 자기가 서 있는 운동장이 최고인데.

교사 B: **많은 사람들이 나쁜 의도 없이 차별적인 용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바꾸는 것이 바로 혐오를 줄이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 2021.6.17. 2차 온라인 토론 중에서 >

차별과 혐오에 대한 민감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개념 또한 더 정교하게 이해될 필요가 있다. 3차 온라인 토론에서 제시된 미세공격(microaggression)¹⁾은 이러한 민감성을 기르기에 적합한 개념으로 생각된다. 많이 알려지지 않은 개념이지만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많은 요소들에 사소하고 간단하게 혐오와 차별이 반영되어 있는 양상을 언급하는 용어로 개념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혐오 감정에 대한 감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수업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특정 발언이나 생각이 차별이나 편견이라는 점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행동의 개선과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시사점을 주었다.

교사 A: 마이크로어그레션이라는 용어를 알고 있었어? 나는 이걸 처음 들어서 너무 신기했어.

교사 B,D : 아니, 처음 들어보는데,

교사 D: 그러네, 일상적, 행동적 환경적 모욕에 쓰이는 용어. 사소하고 간단한 것들에 대한 표현이라는.

교사 A: 일상에서 쓰이는 수많은 혐오 표현들이라는 거야. ‘차이나는 클래스’ 프로그램에서 강의를 듣는데 아시아 혐오에 대한 내용들이 같이 자료에서 다루어졌고, **사람들이 일상생활과 연계되어서 수많은 것들이 다 혐오가 될 수 있다는 게 그 내용이었어.** 요즘 혐오표현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것 같아.

교사 B: 이 아시아 혐오 이야기 나오면서 미세공격성이 같이 나왔어?

교사 A: 희생양이 된 아시안 이라고 부제가 붙었는데, 이게 미세공격성과 연결된다고 설명하더라구. 이런 용어가 하고 놀랐어. 전문가가 나와서 이야기하니까..., 나는 모르는 세계 같아.

교사 B: **이런 용어를 보니까 혐오를 더 민감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긴 하네.**

교사 D: 이 개념 한 번 살펴볼 만한 거 같아요. 다시 자료 더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7월 2일 온라인 3차 회의 중에서 >

1) microaggression(미세 공격)은 미국 하버드대학 교수이자 정신과 의사인 체스터 프라이어(Chester M. Pierce)가 만든 말로, 흑인에 대한 언어적 차별과 모욕을 묘사하기 위해 만든 말이다. 1973년 MIT 경제학 교수 메리 로(Mary Rowe)는 이 개념의 적용 대상으로 여성을 포함시켰으며, 이후 장애인이나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 전반으로 그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 김환영은 " '미세 공격'의 특징은 미묘함 · 모호함 · 비의 도성(非意圖性)이다. 차별적 발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미세 공격'에는 무심코 내뱉은 말이나 혼잣말도 포함될수있다. 말을 한 사람이나 들은 사람이나 예민하지 않은 사람들은 포착하지도 못할 말들이다. (다음 백과, 검색일. 2021.7.2.)

혐오에 대한 수업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혐오인가에 대한 개념 이해와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미세 공격의 개념처럼 매우 민감하게 차별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운 말들까지 모두 혐오 표현으로 규정하고 수업을 진행하기에 구체적인 활동을 규정하기 쉽지 않다. 편견과 같은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특정 집단을 대상화하여 여러 사람이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소수자를 배제하는 혐오의 감정으로 드러나게 되므로 결국, 혐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편견과 차별의 감정에 대한 문제점을 깨닫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수업을 위한 개념 범주 설정의 과정은 혐오와 같이 불분명하고 애매한 가치들을 다루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연구회 구성원들은 토론을 통해 모든 차별과 혐오를 없애는 절대적 기준을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최소한 수업에 적용하기 위한 범위의 설정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편견이나 차별의 감정이 혐오 표현과 연결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수업에 적용할 방향과 구체적 내용을 고민할 수 있었다.

교사 C: 혐오를 없애자는 것도 결국 평등을 이루자는 건데 그게 누구의 기준인가, 오랫동안 이를 수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근데 차별의 관점에서 혐오를 보면 너무 맥락이 넓으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려는 것의 범위를 정해야 할 것 같아.

교사 A: 나는 그냥 편견이라는 생각, 지극히 감정적인 것을 표현한 단어가 차별이고 이것을 표현하면 혐오가 아닐까. 편견이나 차별이라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 바로 혐오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교사 B: 이런 고민은 우리만이 아니고 이 내용과 관련된 수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볼 만한 고민이 아닐까.

< 2021.6.17. 2차 온라인 토론 중에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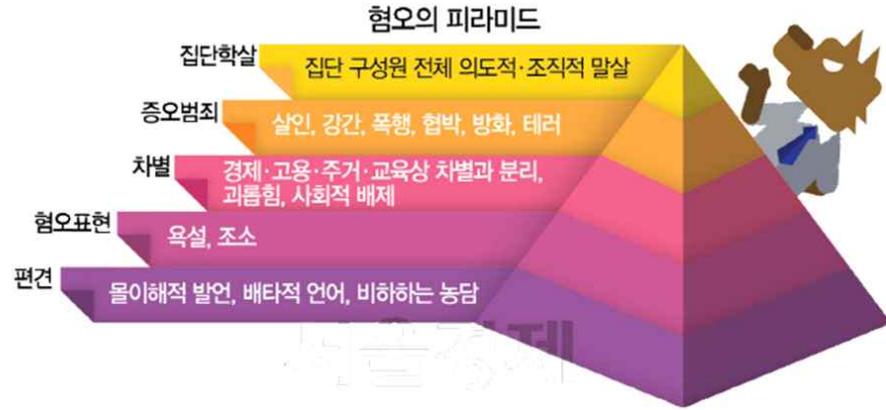
이러한 논의를 거쳐 수업에서 적용할 혐오와 차별의 범위와 의미에 대한 나름의 기준과 개념이 잡혀야 한다는 결론 아래 지속적 논의와 공부를 지속하였다. 가장 도움이 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온라인상 혐오표현 사례와 혐오피라미드 개념이었다. 혐오를 막연하게 공격적이고 차별적인 감정으로만 생각했던 수준에서 벗어나 단계별 혐오에 대한 이해를 통해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사고가 가능했다. 또한, 혐오의 감정과 표현에 대한 교육을 고민하면서도 혐오 피라미드의 단계를 학생 수준과 연계하여 적용하는 방법을 구상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를 참고로 하여 혐오의 피라미드를 적용해 수업에 적용할 때에는 각 단계별로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아이디어가 공유되었다. 그러나 온라인상 혐오사례로 제시된 내용은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지역에 따른 편견 및 혐오를 보여준다는 예시로서의 가치는 있지만 각각의 표현들이 매우 심각한 경우를 상정하였기 때문에 단순히 편견이나 차별로 보는 표현들에 대해서는 수업에서 나름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교사들 각자의 고민이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온라인상 혐오표현 사례

자료:국가인권위원회

여성	김치녀·콩깍지 등 각종 00녀, 창녀, 갈레, 정액받이, 맘충, 못생긴
성소수자	동고충, 변태, 호모, 너 레즈나, 게이인 줄, 더러운 놈, 짐승, 역겹다, 성적으로 문란한, 보균자
장애인	애자, 벌레, 열등한 존재, 장애인 부모는 죄인, 같이 살 수 없는 존재
이주민	조선족 새끼, 테러리스트, 못 사는 나라
지역	전라도는 몰살, 개쌍도 새끼들, 전라도 흥어, 통구이 (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



[그림 III-1] 국가인권위원회 혐오 표현 참고자료

나. 교육에서의 혐오와 차별

교육에서 혐오와 차별이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 사회의 혐오 문제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한국사회의 혐오는 소수자 집단에게 행하는 혐오와 신분제, 능력지상주의 등의 거부에 기반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한다(이종일, 2017). 혐오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서구사회와는 다르게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젊은 세대에서 보이는 여성 혐오와 남성 혐오라는 수평적 혐오가 성별대립구도로 이어지고 있으며 연령과 장애, 임신부를 대상으로 하는 혐오와 갑을관계에 기반한 혐오가 주를 이룬다고 한다(정재원, 2019: 100). 이러한 분위기는 사회의 축소판인 교실에도 여실히 반영되어 드러나게 되는데 특히 경쟁이 강조되는 한국 사회의 특징이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성과 차이를 환영하고 다양성을 포용하도록 하는 교육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정재원·이은아, 2017: 232).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소수자 학생들에 대한 차별 논의들은 학교가 성적, 성별, 장애, 국적과 인종, 성 정체성 등의 문제에 있어 다수자 중심의 질서와 문화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이혜정 외, 2019: 13). 학교 안 혐오 문제를 다룬 이혜정 외(2019)의 연구에서는 교실에서 가장 많은 혐오의 사례가 젠더 이슈, 성별에 따른 혐오 표현들이라고 강조한다.

성별과 관련한 혐오의 문제는 교사들로 구성된 연구회 토론에서도 가장 많이 찾아볼 수 있는 논의 주제로 혐오 및 차별, 편견의 문제에 핵심 이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에는 학생들 사이에서의 성별에 따른 편견과 혐오 뿐 아니라 교사와 학생의 관계, 교사들 사이의 관계 등 다양한 학교 구성원들이 이러한 성별 혐오와 편견을 경험하고 있었다.

교사 D: 남녀 공학에서 대개 체육복 갈아입을 때 여자들이 교실에서 입고 남자들이 화장실에서 갈아입잖아요. 그럼 남학생들이 불만을 말해요. 탈의실이 따로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경우가 잘 없으니까. **남학생들이 '왜 우리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무의식적으로 교사들도 무거운 거 들고 할 때 남학생들 이리 와봐, 옮기자,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교실 뒷정리는 여자애들한테 맡기거나 같이 하라고 하거든요. **남자애들이 왜 우리는 힘든 건 우리가 다 해요? 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교실에서 성평등, 신체적으로 차이가 있어서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걸 학생들 입장에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꼭 남학생들이 양보해야 하는 문제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또 학부모의 시선도 성차별이나 성역할적인 게 많고 민원도 의견이라서 이런 것도 고려해야 해요.

교사 A: 학교 안에 여학생 탈의실 만드는 사업도 있었어. 왜 여학생만?

교사 B: 학교에서도 대부분 여교사휴게실이 많지. 이게 당연한 건 아닌데, 과거에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을 신체적으로 약하고 보호해야 할 입장으로 보는 게 있어서, **그래도 배려의 대상이어야 한다는 데 대해 사회적 합의가 있었는데 요즘 십대는 왜 그래야하는지 이해를 못하고, 왜 우리만 배려해야 하는지 진심으로 이해를 못하는데 자꾸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화가 나나 봐.** 힘한 소리가 나오고

교사 D: 이걸 이해시키고 교육시키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학생들은 신체적으로 약하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 학부모 입장도 고려해야 하고.

<2021.6.4. 1차 온라인 토론 중에서>

협오의 감정과 표현 관련 문제들에 대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그 원인 분석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다. 특히 예전과 비교해 달라지고 있는 사회 분위기와 다양한 문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해 토론 방법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교사 B: 예전에는 조금 더 폐쇄적인 사회였지만 대신 사회적인 기준이나 합의가 있어서 약간 벗어나도 이해하고, 생각이 달라도 참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사회가 아니고 모두 자신의 생각과 기준을 우기려고 하니까..., 교육의 현실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닐까...

교사 A: 예전엔 사회적 이슈에 대한 생각들이 신문이나 뉴스가 다였지만, 요즘은 수많은 사건들이 기사화되고, 단순히 표면적으로 보이는 기사에 대해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의 범위가 좁아지고 포용의 범위 역시 좁아지는 경향이 있는 거 같아. **사회적 이슈에 대한 깊이 있는 토의나 생각 나눔이 필요하지 않을까? 학생들에게도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거 같아.**

<2021.6.4. 1차 온라인 토론 중에서>

또한 사회 문제를 각자의 경험과 연계하여 실질적으로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의 중요성과 이러한 방법적 접근은 결국 시민교육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공유되었다.

교사 A: 수업에 학생 개인의 삶을 끌어들이는 부분이, 너무 어렵지만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 사회 문제가 결국 개인의 문제가 되어야 하고 이렇게 개인의 경험으로 들어가야 학생들이 집중하게 되니까. 어떻게 학생들의 경험을, 학생들의 삶을 끌어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고 결국 학생들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해. **결국은 그 개인의 삶을 수업으로 끌어들이고 그것을 내면화시키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지.**

교사 C: 결국은 **시민교육과 연계되는 것은 아닐까?** 하나의 사건이나 현상을 그냥 단순히 표면적으로 해석하도록 하는 수업이 아니라 학생 개인의 생각을 풀어내도록 하고, 역사적 흐름 또는 맥락 속에서 해석하고, 연계하여 실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2021.7.16. 4차 온라인 회의 중에서>

Nussbaum(2006, 조계원 역, 2015)은 혐오가 한 사회가 개인의 무의식에 주입한 편견 및 고정관념과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따라서 혐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을 인식하고 이것이 차별과 연결되는 과정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의 혐오 관련 주제들은 젠더 문제에서 매우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었고, 능력주의와 공정이나 공평과 같은 가치들이 중요시되면서 교실에서도 공평의 문제가 여러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다음에서 살펴볼 사례 분석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다. 젠더 중심의 혐오표현과 차별, 편가르기와 관련한 생각과 표현들이 우리 사회의 여러 이슈들에 적극 반영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2. 사례 분석을 통한 개념이해

연구 기간동안 Band를 통해 수집된 자료들은 인터넷 뉴스나 신문 기사, 책과 TV 프로그램 등의 간접 자료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를 그 내용에 따라 젠더, 인종 및 소수자, 경제적 불평등과 능력주의, 혐오표현의 네 가지 범주로 분류되었다. 세부적인 자료들의 내용은 다음 [그림 Ⅲ-2] 와 같다.

01 젠더	02 인종 및 소수자	03 경제적 불평등과 능력주의	04 혐오표현
5/11 평택시 남협 손모양 포스터[기사] 5/12 여학생만 탈의실 이용하나? [기사] 5/12 GS25, BQ교촌 손모양 포스터 [기사] 5/17 탄소사회의 종말 -젠더와 사회문화적 요인 5/25 국방부 손모양 포스터 논란[기사] 6/7 출신·병력 이해하지만 취업문에서 손해 6/7 탄소 사회의 종말-젠더 기반 폭력[도서] 6/9 남편 거짓말에 강제 임신 축복 발언 논란 6/15 '허버허버' 표현이 남성 혐오? 언론도 갈등 조장 [기사] 7/3 '보이루' 표현의 여성혐오 표현[기사] 7/7 2021판 착한 사마리아 인 논쟁[기사] 7/22 맥트를 가장하는 혐오[기사] 7/25 동서식품 스타벅스 캔커피 '손가락 그림자' 논란[기사] 7/26 좋은 아내로 예뻐 받고 살아[기사] 7/29 안산 선수 관련 젠더 갈등[기사] 8/1 김승업 SNS 내용[SNS] 8/6 인천 지하철 홍보물 손모양 논란	5/12 연산 인종증오 피해자[기사] 5/13 유색 인종 차별 반대[기사] 6/17 아시아 혐오-microaggression [TV Program] 7/25 성소수자 이모티콘 논란[기사]	5/20 고려대 총학 '분캠 학생 임명 5/28 학벌 차별 있다면 누가 밤새워 공부하나요? 6/4 차별의 팬데믹[유네스코 뉴스] 6/4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직, 돌봄 전 답사 등의 비정규직 처우 문제 7/3 '혐오, 교실에 들어오다' 도서 7/7 능력주의와 불평등 도서 7/13 평등은 없다, 경제적 평등주의 7/25 인권도 차별이 되나요?	6/5 혐오표현, 왜 문제이고 어떻게 극복할까[칼럼] 6/5 혐오 표현 안쓰기 프로젝트 [칼럼] 6/15 교실 내 혐오표현(동영상) 6/15 온라인 상의 혐오표현 심각[기사] 6/26 왜 혐오의 세대가 되었나[칼럼] 6/26 혐오 표현의 자유? [칼럼] 7/2 혐오 표현은 어떻게 사회를 파괴 하는가. [Youtube] 7/3 혐오 유감-혐오피라미드 개념 7/15 '신사 숙녀 여러분' 표현에 담긴 편견 [신문 기사] 7/30 '히잡' 빚겨져 '동근 백' 만드는 스포츠맨십[Youtube]

[그림Ⅲ-2] 자료 표집 분석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젠더 관련내용이 17개(44%), 인종 및 소수자 4개(10%), 경제적 불평등과 능력주의 8개(21%), 혐오표현 10개(2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여러 연구 논문에서 드러난 것처럼 학교 안의 혐오 현상이나 사회적 문제들이 젠더가 매우 심각하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젠더> 문제는 하나의 통일된 주제가 여러 가지 양상으로 등장하여 해당 주제에 대해 토론이 진행되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남성 혐오 ‘손가락 모양’이라는 주제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졌는데, 평택시 남혐 손모양 포스터, GS 편의점 손모양 포스터, 국방부 손모양 포스터 논란, 동서식품 스타벅스 캔커피 손가락 그림자 광고 논란, 인천 지하철 홍보물 손모양 논란이 모두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었다. 우리 사회가 젠더 문제에 매우 민감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손가락 모양으로 인한 남성 혐오 감정이 언론에 매우 자주 등장함이 놀랍기도 했다.

<젠더> 주제에 비하여 인종이나 경제적 불평등과 같은 주제는 자료 하나하나가 많은 소주제를 포함하는 큰 범주에서 다루어졌다. <인종과 소수자> 주제에서는 인종증오, 아시아혐오, 성소수자 등의 주제들이 다루어졌고, <경제적 불평등과 능력주의> 주제는 인권과 학벌차별, 학교에서의 비정규직 처우 문제까지 등장하였다. 혐오와 차별이 우리 사회에서는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인하여 개인이 자신의 삶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인식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혐오표현이 더 강해지는 양상을 가진다는 분석(구정화, 2018: 6)과 맞닿아 있다. 학업, 취업, 고용 등 다양한 삶의 장면에서 자신의 존재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이 지속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석승혜· 장인식, 2006: 88).

<혐오표현> 범주의 자료들은 실질적으로 혐오표현이 왜 문제인지, 교실에서 혐오표현 관련 내용을 어떻게 수업에서 다루었는지 등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자료들이 많이 등장하였다. 이 자료들은 칼럼이나 강의 등이 많아 혐오 표현의 문제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인식하고 극복하기 위한 어떤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연구에서 사용된 주제들은 크게 네 개로 분류되었지만 모두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는데, <젠더> 문제에서 약자가 된 여성 혹은 남성들은 <사회적 소수자>로서 편견과 혐오를 받을 수 있었고, 이들은 결국 <경제적 불평등과 능력주의>의 대상이 되어 <혐오표현>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주제의 분량보다는 각 주제들이 다루어지는 양상이 더욱 중요하며, 이 주제들이 결국 모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따라서, 각 주제들이 나타나는 양상에 대해 토론에서 제시된 세부 내용들은 혐오와 차별이라는 주제 뒤에 숨어있는 배경과 원인들을 생각하는 토대가 되었다.

3. 혐오의 배경과 원인 이해

연구에서 표집된 자료들과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의 여러 혐오 현상들이 몇 가지 배경과 원인들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기존의 연구들이 여러 한국의 혐오 현상을 분석하고 있지만, 일상의 경험들을 교육과 연결시키는 교사의 입장에서 느끼는 혐오 현상들은 교실에 바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의를 가진다.

가. 일부 극단주의자들의 주장을 언론에서 기사화하여 이슈를 만드는 양상

연구회 구성원들이 극단적 혐오 표현과 감정의 증가의 원인으로 가장 자주 주목한 것은 언론의 문제였다. 특히 젠더 이슈나 특정 사회 문제들에 대해 일부 극단적 입장과 생각들의 상당 부분 언론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 서술 방식 또한 감정을 부추긴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의견에는 최근 언론에 대한 불신도 많이 작용하였는데, 인터넷 조회수가 중요해지면서 일부 메이저 언론사의 기사가 모두 똑같은 내용으로 제시되는 모습이나, 정확한 사실 확인도 없이 자극적인 내용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언론의 모습에 대한 실망감도 함께 언급되었다.

교사 D: 너무 뭐랄까, 언론에서 부각시킨다고 할까, 부각시키고 이슈화시키는 느낌도 있고,

교사 A : 언론이 세탁하는 거래, 대박

교사 C: 이렇게 사람들이 갈라지면 정치 선동질을 하기가 좋거든.

교사 A: 정말 다 싸우자고 달려드는 거 같아. 조중동이 앞장서서 남녀를 이간질시키는 기사를 내놓으니 더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 메이저 언론사가 내놓으면 나머지 기사들도 그렇게 베끼는 거야. 사실 나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남녀 사이가 안 좋았나?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학교 보내지? 하는 생각이 들어.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까지 되지 않는데

교사 C: 학교폭력이 그만큼은 아니었는데 기사가 왕따나 은따가 일상인 것처럼 나오면서 일상화 된 것 같아.

교사 A: 그것도 무시 못하는 거지. 더 많은 것을 드러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모방도 많이 일어나서, 이게 해도 되는 거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지.

교사 B: 우리가 혐오표현에 대해 수업을 하면 이런 표현들을 이야기했을 때 오히려 몰랐던 아이들이 배우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수업에 반영할 때도 이런 점들을 많이 고려해야 할 것 같아.

교사 A: 그런데 그런 예시 없이 수업을 할 수 있나?

교사 D: 좀 다른 점은, 기사들과 다른 점은 미디어는 이슈화를 시키는 거고 우리가 교육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있지만 옳은 방향이 더 나은 표현이고 방향이라는 건 우리가 계속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차이점은...

< 2021.6.17. 2차 온라인 토론 중에서 >

또한 언론을 통해 오히려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던 혐오표현이나 내용을 접하게 되면서 모방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염려와 더불어, 교실에서도 혐오표현을 가르치면서 오히려 혐오와 관련된 새로운 표현을 학생들이 배우게 될 우려가 등장했다. 혐오로 표현되는 내용들 자체를 사용하지 않고 수업을 진행하기는 어려우니, 더 옳은 방향과 나은 표현에 대한 지속적이고 충분한 언급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교사로서의 입장으로 제시되었다.

나. 과잉 공정성의 사회에서 '공정'에 예민해진 사람들

다른 한 가지의 배경은 최근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 이다. 우리 사회에서 공정은 사회적 목표이자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공정을 모두가 외치면서도 무엇이 공정인지 바라보는 기준은 모두가 다르다는 것이다.

특히, 자신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에 ‘공정’의 잣대를 들이대며 다른 누군가를 타겟으로 삼아 공정하지 않다는 윤리적 평가와 함께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는 혐오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를 흔히 발견하게 된다. 일반 대중과는 다른 경제적 부를 누리고 인기를 가지는 연예인들이 대표적이고, 코로나 확진자나 대학입시 비리, 고용 비리, 정규직 전환이 되는 특정 직종 사람들에게 퍼붓는 혐오의 표현들이 이러한 양상을 잘 보여준다.

교사 B: 요즘 사람들이 공정에 예민하잖아. 그런데 사회의 부조리나 부정의에는 예민하지 않는데 자기가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별때처럼 들고 일어나서 그러면서 그게 공정이라고 말해. 이게 부정의라고 하면서. 그리고 그 분노를 풀 데가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약한 누군가를 타겟으로 삼아서 분노의 표출 대상으로 삼는 것 같아. 뭔가 하나 잘못했다. 교사가 하나 코로나 걸렸는데 노래방에 갔다 그러면 완전 사람 매장되는거야. 너 잘 걸렸다 이러는 거지. 나는 이런 게 되게 혐오의 느낌이거든.

교사 C: 그게 경제적 요인도 큰 거 같아. 2-30대 남자들이 심하잖아. 혐오의 주체잖아 어떻게 보면. 근데 적당한 직업도 없고, 하려고 해도 취직이 잘 안되고, 5,60대는 노력으로 성공신화가 있는데, 애네는 노력이 안돼. 노력이 안되니까 이걸 타고나는 거야. 그러니까 2,30대는 그렇지 않으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니까 그 스트레스를 다른 데로 푸는 거지. 공정을 부르짖고 싶지만 능력주의대로 따지면 자기가 능력이 없는 거니까.

교사 A: 지금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 혐오표현이 나쁘다고만 이야기하는 게 충분하지 않은 거야. 사회의 기저에 깔린 분위기를 건드려야 하는 거니까. 문제는 이런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 이거 잘못 건드리면 더 논란이 될 수도 있거든.

< 2021.6.17. 2차 온라인 토론 중에서 >

이러한 양상은 결국은 승자 없는 울과 울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과 함께 우리가 혐오와 차별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혐오 표현이 나쁘니 사용하지 말자는 수준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그 혐오가 드러나는 기저에 깔린 배경과 원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더욱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혐오와 차별에 대해 교사들 스스로도 그 사회적 배경을 잘 인지하여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방법 또한 요구되었다.

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상황의 스트레스 요인

혐오와 차별의 양상은 강남역 문지마 살인이나 숙명여대 입시 비리 등 몇가지 큼직한 사회 문제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와 더불어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변화 모습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인권과 관련된 수업은 오랫동안 학교에서 지속되어 왔는데, 연구 과정에서 살펴본 혐오표현 관련 수업들은 기존의 인권교육이나 인성교육과 비교해 별반 차이가 없어보였다. 다만 최근의 혐오와 차별이 드러나는 양상이 더욱 직접적이고 심각한 사회 문제와 연결되면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에 모두 동의하였다. 여기에는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 뿐 아니라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로 등장하고 있다는 의견이었다. 특히 유럽 등지에서 나타나는 아시아인 혐오 현상은 코로나로 인한 자신의 일상 변화에 대한 불만이 전염병을 시작하게 했다는

특정 인종에게 전가되어 아시아인 전체를 대상화하여 화풀이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도 심지어 교사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한 예민함과 민감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점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교사 C: 그런데 혐오 수업한 자료들 보니까 인권 수업과 별반 차이가 없고, 대단한 뭐가 있다기보다, 혐오 대신에 욕 안하기 프로젝트 같은 것을 사용해도 비슷해. **왕따라는 용어가 혐오를 대체해도 똑같아. 근데 이런 건 옛날에도 있지 않았어?**

교사 B: 항상 있었던 표현인 건 맞아. 근데 요즘 더 심해진 것 같지 않아? 어떤 사회적 문제가 될 만큼의 현상인 것 같거나, 많이 드러난다고 이야기되는 것 같아

교사 C: 나는 그게 **코로나가 한 몫 한 것 같아**. 사람들이 일상이 자유롭지 않고 생각이나 생활반경이 협소해지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데 풀 데가 없어. 거기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기까지 하면 더 답이 없는 거지. 예민해지고 민감해지는데,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할지 몰라. 교사 커뮤니티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 예전에는 풍성한 다양한 화제가 올라오는데,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나, 이러기도 하거든. 경제적, 마음적 여유가 없으니까 혐오가 더 부각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

< 2021.6.17. 2차 온라인 토론 중에서 >

혐오와 차별이라는 주제를 수업에 적용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배경과 원인의 분석 및 인식은 구안한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교육 실천에 직접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순히 사용되는 혐오표현을 인식하고 사용하지 말자는 수준의 학습보다는 혐오 표현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과 문제점을 이해하고 접근할 경우, 학습의 효과도 올리고 혐오표현에 대항하는 여러 중요한 가치들 또한 저절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예시를 통해 혐오와 차별이 드러나게 되는 양상을 스스로 인식하게 하는 것도 혐오표현 자체의 나쁜 점만을 강조하여 진행하는 교육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연구회 구성원들은 지속적인 토론을 통해 혐오와 차별의 개념에 대한 배경과 원인을 분석하면서 교사 혼자 자료를 찾고 개념을 정립하여 수업 내용을 구안하는 것보다 상당 기간에 걸친 자료 수집과 더불어 다른 교사들과의 지속적 토론이 혐오와 같이 모호한 주제를 교육에 반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다. 특히, 해당 주제에 대해 사고의 균형과 다양성을 가질 수 있고 혼자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새로운 관점을 나누기도 하며, 어렵고 지겨워 포기하고 싶을 때 서로 격려해 더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기도 하였다.

IV. 토의 결과 적용과 공유

1. 교실에서 발견한 연관 교육 활동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혐오 담론에 대한 분석은 많았지만 상대적으로 이를 교실에 적용한 구체적인 교수법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주장이 있다(정재원, 2019: 115). 그러나 혐오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반영하지는 않더라도 이와 관련한 활동들이 교실 속에서 실천된 사례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이들은 많은 교사들이 실제 교실활동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로, 혐오나 차별 교육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당 내용을 더 구체화시키고 시사점을 초점화한다면 추가적인 교육 내용으로 인한 부담 없이 수업에 더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교실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연관 교육 활동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가. 학급경영에 적용 사례



[그림 IV-1] 혐오표현 줄이기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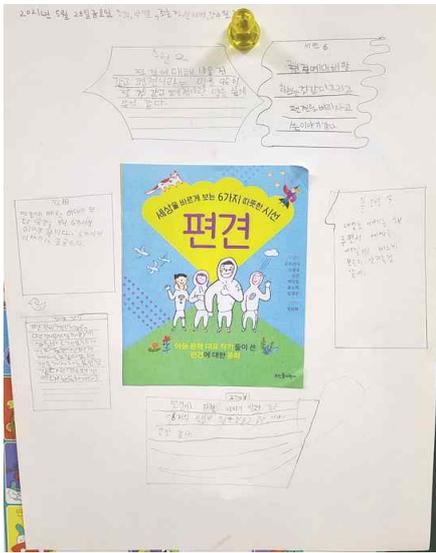
교육활동은 수업시간에만 일어나지 않는다.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모든 경험들이 교육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학급경영에서 이루어지는 교실 공동체 활동들과 계기교육,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등 수업 외 시간에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연결되는 학교 생활은 학생들의 교육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장으로 인식된다.

제시된 그림 [IV-1]은 학급에 게시된 혐오표현 줄이기 캠페인이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제안한 캠페인이라는 점에서 혐오 표현의 문제는 교육정책 면에서도, 인권적 측면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캠페인 자료는 연구회 구성원 중 교사 A가 교실에 게시하고 학생들의 지도에 활용하고 있는 내용으로 단순히 교실 한 쪽에 게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학생들과 함께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혐오표현이

무엇인지까지 하나하나 확인해가며 캠페인에 제시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이 혐오표현의 개념과 문제점을 정확히 알고, 대응하는 표현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라는 부분과 “혐오표현의 문제가 피해자의 탓이 아니며 단지 개인 간의 다툼이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임을 이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토론하겠습니다”라는 항목은 인성교육과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혐오와 차별 없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주체이자 가장 먼저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위자로 아동과 청소년을 지목하고 이러한 혐오표현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키울 수 있도록 한 점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나. 독서활동으로 적용가능한 사례



[그림 IV-2] 독서 전 활동 사례

독서 교육은 학교에서 전 학년에 걸쳐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는 교육방법 중 하나일 것이다. 단순한 아침 독서 활동 뿐 아니라, 독서토론, 한 학기 한 권 읽기 등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들이 구상되고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효과적인 독서 활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활동에서 적용되는 주요 방법은 독서 전-중-후 활동을 활용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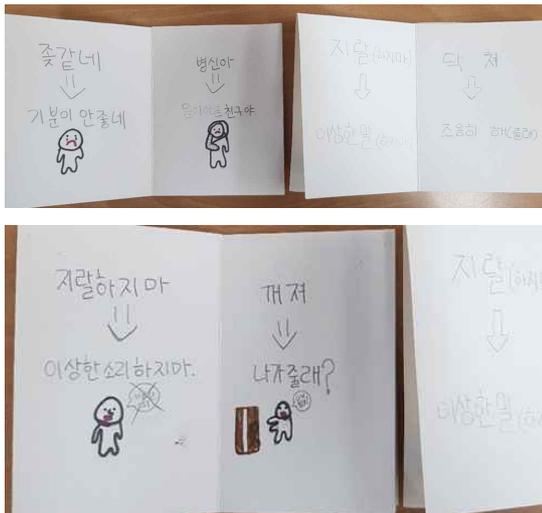
독서 교육은 대상이 되는 책을 어떤 것으로 선정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방법인 만큼, 혐오와 차별을 줄이기 위한 교육활동에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그림 [IV-2]는 ‘세상을 바르게 보는 6가지 따듯한 시선 <편견>’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다문화, 장애, 외모, 여성, 탈북민, 학력의 6가지 주제에 대해 우리 사회의 혐오와 차별을 어린이의 수준에서 접근해 보고자 시도하였다. 해당 그림은 책을 활용한 독서 전 활동의 사례이다.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책의 표지를 보고 내용을 상상해보는 것으로 주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책의 내용을 구상해봄으로써 창의력을 기를 뿐 아니라 추후 읽게 되는 책의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다음 <표 IV-1>는 C 교사가 독서 활동을 통해 수업시간에 적용해 본 활동 내용을 공유한 것이다. 처음부터 ‘혐오와 차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인성교육이나 다양성을 기르기 위해 진행한 많은 수업들이 실질적으로 ‘혐오와 차별’을 주제로 한 수업과 연관된다. 이러한 내용의 수업들은 교사들이 ‘혐오’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간단한 언급 만으로도 충분히 혐오 표현을 줄이기 위한 수업과 연계할 수 있다.

<표 IV-1> ‘혐오와 차별’과 연계 가능한 독서 활용 수업 예시

주제	활동내용	관련 교과	학 년	성취기준
다문화/장애/외모/여성/탈북민/학력의 6가지 주제를 가지 고 우리 사회 안의 혐오와 차별에 대해서 살펴본 후 독서 토론 활동하기				
1차시	◎ 독서 전 활동 -책의 제목과 표지, 목차를 보고 내용 예상해보기 -우리 사회의 혐오와 차별에 대한 배경 지식 살펴보고 모 둠별로 도식화 또는 마인드 맵핑 해보기			[4국05-04] 작품을 듣거나 읽거나 보고 떠오른 느낌과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2차시	◎ 선생님이 읽어주는 이야기 - 학급 내의 문제와 관련된 또는 우리 사회의 현안과 관련 된 주제 이야기를 하나 골라서 읽어주기 - 학생들과의 문답을 통해 책과 주제에 대한 관심 키우기 - 릴레이 독서 격려(1주일 소요)	국어 (독서)	3-4 학 년	
3차시	◎ 독서 후 활동 - 책 읽은 소감을 나누고 다른 모둠과 공유하기 위한 독서 후 자료 만들기 (비경쟁 독서토론 또는 모둠별 토론 결과 자료등)			

다. 국어과 연관 내용 수업 사례



[그림 IV-3] 국어과 관련 내용

수많은 혐오 표현의 사례 중 ‘욕’은 초등 수준의 학생들에게 가장 심한 표현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정확한 뜻과 의미를 모르면서 ‘멋있게 보이려고’ 혹은 유행어 처럼 남들이 다 쓰니까 별 의미 없이 사용하게 되는 욕설들에 대해 그 의미를 알아보고 적절한 바른 말로 바꾸어 보는 활동은 혐오 표현을 줄이기 위한 수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해당 단원은 6학년 1학기의 바른 말 사용에 대한 수업 내용이다.

2. 단계별 학습 프로그램 구상 및 적용

가. 수업 프로그램 구상

혐오와 차별을 줄이기 위한 수업 프로그램의 핵심은 수준에 맞는 혐오의 단계를 교육에 적용해 보는 것과 혐오표현(Hate Speech) 해결을 위해 대항표현(Counter Speech)를 적극 활용해보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초점은 연구회의 토론 과정을 통해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는 혐오와 차별에 대한 해결 방법의 제안에서 비롯되었다.

교사 D: 참여연대의 혐오표현에 대한 자료를 검색해봤는데, 여기 자료에서는 어떤 표현이 혐오표현이 될 수 있는지 말을 해주더라구요. 단순하게 나쁜 말이 아니라 특정 집단, 특정 성별을 건드리면서 이야기하면 이걸 혐오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서,

교사 B: 이혼한 여성에 대한 표현 등도 혐오표현 될 수 있다고 하는구나,..,저번에 우리가 고민했던 내용의 답이 나오네. ‘이주노동자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도 혐오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네.

교사 D: 다양한 혐오표현의 유형의 예시를 들어주어서 저도 아 그렇구나 생각했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구나 예를 들어주어서 좋았어요.

교사 B: 모욕, 비하 멸시, 위협이랑 차별, 폭력의 선전과 선동,, 이렇게 구분하니까 좋다. 우리가 저번에 되게 모호하다고 생각했던 건데, 그 첫 번째가 심각하니까 먼저 고려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차별의 생각을 만드는 것까지 어떻게 표현되는지.

교사 D: 혐오표현 자체를 구분할 수 있다는 느낌을 여기서 받았어요. 차별이나, 집단을 구분짓고 분류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표현 자체가 다 혐오표현이 될 수 있겠다고 이해가 됐어요.

(중략)

교사 A: 홍성수 교수 세바시 강연을 들었는데, 2017년이라 꽤 된 건데, 몇 가지 되게 생각할 부분이 있었어. 차별금지법 이야기하면서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혐오표현이 코너에 물리는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 중 혐오표현에 대해 어떠한 제제도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대. 우리나라에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것도 있고, 이 교수가 이야기하는 건 실제 혐오표현을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로 인한 부정적 효과가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거야. 처음엔 이상하다 하다가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그게 기정사실화 되는 것이다.

교사 D: 그렇지요.

교사 A: 또 하나 비정상회담에서 혐오표현은 자유인가 아닌가로 한참 토론한 부분이 있어. 밴드에 올렸고. 그리고 또 인상 깊은 거는 혐오표현(hate speech)의 반대로 대항표현(counter speech)인데, 대항표현이라는 거에 대해 다들 알고 있었어?

교사 B,C : 아니, 몰랐어

교사 D: 내가 찾아본 자료 3번인 것 같아요.

교사 A: 요즘은 대항표현을 통해 혐오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으로 노력한대. 아주 의미있게 본 내용이었어.

<2021.7.2. 온라인 3차 토론 중에서>

이렇게 논의된 방법적 특성을 교육에 적용하여 수업 방법을 고안해보고자 하였다. 먼저, 앞의 [그림Ⅲ-1]에서 제시된 혐오의 단계는 각 단계별로 중학년과 고학년 프로그램에 적용해

볼 수 있다. 초등 수준에서는 편견과 혐오표현을 이해하고 줄이기 위한 활동에 집중하되 교육과정의 내용과 연계하여 수업 내용을 구상할 수 있으며 차별행위나 증오범죄, 집단학살과 같은 높은 차원의 혐오는 중등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적용 가능할 것이다.



[그림 IV-4] 혐오의 단계

<단계별 학습 프로그램 구상>	
	3학년: 나 자신의 편견 없애기.
중학년 -편견	다양성 인정(외모 편견 등)
	4학년: 우리 지역과 다양한 가족의 이해
고학년 -차별, 혐오표현	5학년: 역사적 사실과 연계한 수업 6학년: 국제인권기준과 차별금지법과 연관

혐오와 차별 없애기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두 번째 원칙은 혐오표현(hate speech)을 없애는 활동과 더불어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대항표현(counter speech)의 활용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혐오 표현을 없애는 방법을 연구한 홍성수(2019)에 의하면,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를 법제화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많은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항표현이 활용되고 있다.

즉, 혐오표현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혐오표현에 대한 사회적 대응을 지원하고 혐오표현이 사회에서 힘을 갖지 못하도록 무력화시키거나 혐오표현의 대상집단이 혐오표현에 의해 종속되거나 침묵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이런 방법은 개념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며 소극적 혐오 표현의 규제보다 폭넓은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사회적 해약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제시할 수 있다(홍성수, 2019: 47-48).

이를 교육적으로 적용해보면 혐오표현 자체를 줄이기 위해 혐오표현을 사용하지 말자는 캠페인을 하고 혐오표현의 부정적인 부분을 강조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학습의 규칙을 정하는 등의 방법과 더불어 평등이나 공동선, 공동체와 같이 긍정적인 가치 교육을 통해 혐오나 차별의 감정을 줄이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들에 대한 논의는 연구회의 토론 과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축구 경기도중 히잡 벗겨진 상대편 선수를 감싸주는 모습 동영상 자료)

교사 D: 축구하다가, 이게 일부러 벗긴 게 아니고 몸싸움하다가 벗겨진 거거든요.

교사 B: 히잡이 이 문화에서는 중요한데, **다양성 존중의 좋은 예시**같아.

교사 D: 같은 편 중에서도 히잡 쓴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 친구만 쓰는데 그걸 다 인정을 해 준거지요.

교사 C: 그 순간 자체는 히잡에서 여성인권을 따질 상황이 아니라 히잡 자체를 인정하고 그걸 감싸주려고 했던 것이 핵심인데, 진짜 저러기 힘들지 않나. **기사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

교사 D: 축구경기에서는 이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전쟁이거든요.

교사 A: 어떻게 보면 여자축구였기 때문에 가능한 문화였을 수도. 만약 남자축구였다면 불가능했을 수도.
 교사 B: 언니가 우리가 맨날 혐오나 차별 이런 이야기만 하니까 되게 기분이 우울해진다고 힘들어
 했잖아. 우리가 혐오의 안 좋은 예 뿐만 아니라 좋은 미담사례도 얘기 할 수 있지 않을까.

< 2021.8.13. 온라인 5차 토론 중에서 >

나. 수업 적용

위에 제시한 단계별 학습 프로그램 중 초등학교에서는 1~3단계인 편견 단계, 혐오표현 단계, 차별행위 단계만을 대상으로 학습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수업에 적용해보았다.

1) 편견 단계

편견 단계에서는 성(性)에 따른 고정관념, 다문화 또는 장애 등에 따른 고정관념 등의 편견을 다양한 방법으로 살펴보고, 스스로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활동을 실시하였다.

첫째, ‘돼지책’, ‘나는 이제부터 남자다’, ‘백마탄 왕자들은 왜 그렇게 떠돌아 다닐까?’ 등의 도서를 선정하여 읽고 생각을 나누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돼지책을 읽고 가정에서의 역할분담에 대하여 깊이 있는 토론 시간을 가지므로써, 당연한 것들이 누군가의 헌신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함으로써 나도 가족구성원으로서 함께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공유하게 되었다.

둘째, 교과서 삽화 및 내용에서의 편견을 찾아보고 직접 바꿔보는 활동을 통해 부정적 고정관념을 변화시켜보았다. 또한 학교 생활 속 편견을 바로 잡기 위해 학교 속 문제점들을 모둠별로 나누어 직접 고쳐보고, 학교에 건의하기 등을 통해 체인지 메이커 활동을 통해 직접 바꾸기 위해 노력하였다.

셋째, 뉴스 기사나 광고 등의 내용에서의 편견을 찾아보고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서의 젠더 갈등과 혐오표현의 원인에 대하여 토론 해보았다. 이를 통해 교과서를 벗어나 일상생활 속 혐오와 차별 관련 사회적 이슈를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었다.

활 동 사 진	<p>1. 우리 모두가 서로 보는 '전통음식'의 다양한 차이를 통해 '전통'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자.</p> <table border="1"> <tr> <th>종류</th> <th>장소</th> <th>특징</th> <th>문화 차이</th> </tr> <tr> <td>전통 음식</td> <td>전통 시장</td> <td>전통 음식</td> <td>문화 차이</td> </tr> <tr> <td>전통 음식</td> <td>전통 시장</td> <td>전통 음식</td> <td>문화 차이</td> </tr> <tr> <td>전통 음식</td> <td>전통 시장</td> <td>전통 음식</td> <td>문화 차이</td> </tr> </table>	종류	장소	특징	문화 차이	전통 음식	전통 시장	전통 음식	문화 차이	전통 음식	전통 시장	전통 음식	문화 차이	전통 음식	전통 시장	전통 음식	문화 차이	<p>1. 우리가 읽은 책 내용을 보며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야기해 보자. (교. 2. 100쪽 ~ 101쪽 ~ 102쪽)</p>  <p>2. 우리가 만든 교과서</p>	<p>1. 학교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소개해 보자.</p> <table border="1"> <tr> <th>학교의 다양한 문화</th> <th>학교의 다양한 문화</th> </tr> <tr> <td>학교의 다양한 문화</td> <td>학교의 다양한 문화</td> </tr> <tr> <td>학교의 다양한 문화</td> <td>학교의 다양한 문화</td> </tr> <tr> <td>학교의 다양한 문화</td> <td>학교의 다양한 문화</td> </tr> </table> <p>2. 학교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소개해 보자.</p> <p>3. 학교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소개해 보자.</p>	학교의 다양한 문화	<p>1. 학교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소개해 보자.</p> <table border="1"> <tr> <th>학교의 다양한 문화</th> <th>학교의 다양한 문화</th> </tr> <tr> <td>학교의 다양한 문화</td> <td>학교의 다양한 문화</td> </tr> <tr> <td>학교의 다양한 문화</td> <td>학교의 다양한 문화</td> </tr> <tr> <td>학교의 다양한 문화</td> <td>학교의 다양한 문화</td> </tr> </table> <p>2. 학교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소개해 보자.</p> <p>3. 학교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소개해 보자.</p>	학교의 다양한 문화														
	종류	장소	특징	문화 차이																																
	전통 음식	전통 시장	전통 음식	문화 차이																																
	전통 음식	전통 시장	전통 음식	문화 차이																																
전통 음식	전통 시장	전통 음식	문화 차이																																	
학교의 다양한 문화	학교의 다양한 문화																																			
학교의 다양한 문화	학교의 다양한 문화																																			
학교의 다양한 문화	학교의 다양한 문화																																			
학교의 다양한 문화	학교의 다양한 문화																																			
학교의 다양한 문화	학교의 다양한 문화																																			
학교의 다양한 문화	학교의 다양한 문화																																			
학교의 다양한 문화	학교의 다양한 문화																																			
학교의 다양한 문화	학교의 다양한 문화																																			
역할 분담표	우리가 만든 교과서	우리는 체인지 메이커	뉴스 살펴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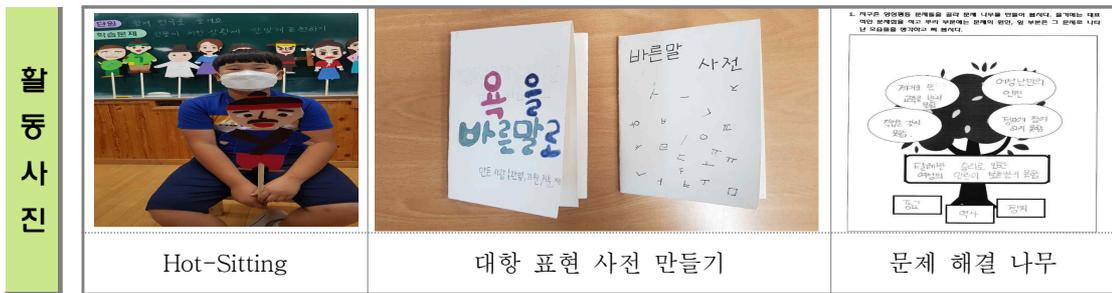
2) 혐오 표현

편견 단계에서 다양한 사회적 이슈 등을 살펴보면서 수없이 많은 혐오 표현이 우리 일상생활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에 혐오 표현(hate speech)을 대항 표현(counter speech)으로 바꾸어보는 활동을 중심으로 수업을 실시하였다.

첫째, 콩쥐팥쥐 등 익숙한 전래 동화 속 혐오표현을 대항표현으로 바꾸어보고, Hot-Sitting 활동을 통해 혐오 표현을 듣게 되었을 때의 감정과 대항 표현을 듣게 되었을 때의 감정을 비교해봄으로써 차이점을 알아보았다.

둘째, 우리 반과 학교의 친구들 사이에서 자주 사용되는 욕설 및 비속어 표현을 다른 대항 표현으로 바꾸는 책 만들기 활동을 통해 언어 순화 활동과 실제 대항 표현을 몇 개월 사용한 후의 혐오 표현 사용 빈도를 비교해보는 활동을 통해 혐오 표현 사용이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것을 학생 스스로 느낄 수 있었다.

셋째, 집단 지성으로 혐오 표현 문제 해결 나무를 만들어 보는 활동을 통해 혐오 표현의 단점을 다시한번 인지하고 이를 대항 표현으로 바꾸어 적용해봄으로써 일상 생활 속 사회적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



3) 차별 행위

차별 행위 중 성 역할에 따른 차별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양성 평등한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활동으로 실천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졌다.

첫째, 교실 속 양성평등의 공정함을 토의를 통해 이야기 나누고, 학생들 스스로 양성 평등 약속을 만들어 채택하였다. 특히, 공정하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해 보면서 우리가 무심코 했던 행동 및 말들이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주고, 차별적 행위가 나중에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두뇌지도 그리기, 하브루타 등의 방법으로 함께 공감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차별 행위 금지와 양성 평등 감수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캠페인 활동을 통해 교실에서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전교생 및 지역 주민들에게도 공정함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내려고 노력하였다.



V. 결론

혐오와 차별 없애기라는 주제를 상당 기간동안 진행하며 연구회 구성원들은 사실 부정 용어의 지속 사용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곤 했다. 혐오와 차별, 편견으로 비롯되어 나타나는 많은 표현들이 실제 사람의 감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체감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를 진행하며 배울 수 있는 점이 많았다는 것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 팬데믹 상황에서 온라인을 활용한 토론을 진행하며, 연구 과정에서 등장했던 ‘접촉이론’처럼 서로 만나 시간을 공유할 수 없는 상황이 매우 힘들게 느껴지기도 했다.

또한, 토론을 통해 정립한 생각들을 적용하고자 할 때, 코로나 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해당 주제인 ‘혐오와 차별’에 대해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병행하는 블렌디드 러닝과 쉬는시간, 점심시간 등 학생들의 수업외 시간의 적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갖게 된 한계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분과 연구회를 진행하며 나오게 되는 결과물도 중요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스스로 느끼고 고민한 내용들이 진정 가치있는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그런 의미에서 한 연구회원의 소감문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연구를 마치며>

‘혐오’를 주제로 분과 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은 ‘왜’라는 질문이었다. 처음 밴드에 각자가 혐오와 관련 있다고 생각하는 다양한 기삿거리들을 모으고 줌 회의를 통해 각각의 기사를 여러 사람의 시각으로 살펴보고 분석하고 이해하는 과정들 속에서 혐오라는 것 자체가 어느 한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 속에서 켜켜이 쌓여왔던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알게 모르게 깊이 뿌리박혀 있었던 개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단지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여과 없이 표현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과 동질적인 집단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더 대담해지기 시작하면서 ‘미디어’를 매개체로 그 민낯이 수면위로 적나라하게 드러났을 뿐.

그 중에서도 내가 눈여겨 본 흐름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역사 깊은 차별적 젠더의식이었고, 다른 하나는 ‘결핍’ 혹은 ‘부재’에 대한 차별적 감정의 극단적 표현이었다. 그 중에서도 ‘말’이 어떻게 ‘무기’가 되어 가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었던 것은 자료 조사 중 찾았던 ‘혐오의 피라미드’였다. 이는 어떤 사람의 의식 속에 자리 잡은 편견이 어떻게 표현되고 행동으로 나타나며 그것이 어떻게 집단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과거와 현재를 구성해 온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과 현상들의 기저에 깔려 있는 근본적인 시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도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남았던 부분이기도 하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혐오'라는 주제를 교실에 들여오기 위해서는 학생의 단계에 따른 다양한 밑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중에서도 분과회의 중 여러 번 우리를 고민에 빠지게 했던 것은 '몰랐던 것까지 드러내어 알려주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이었다. 어려운 질문이고 한 번에 답할 수도 없는 질문이다. 그렇기에 어떻게 풀어갈지 그 열쇠는 교사 그리고 교육과정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들과 동떨어진 세계가 아니라 그들의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어떻게 교육과정과 엮어서 자연스럽게 체득되고 내면화되도록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말이다. 세계시민교육의 여러 갈래를 통해 확산적 접근으로 풀어가든 수많은 사례들 속에서 최종 의미를 찾는 수렴적 접근으로 풀어가든 중요한 것은 적어도 '혐오'라는 것에 대해 의식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학생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교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교육과정을 풀어내는 것은 교사의 수업이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는 공식적으로는 끝나겠지만 사실 교사인 나에게 이 연구는 또 다른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아직 풀어갈 숙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연구 내내 우리에게 '혐오'와 관련하여 수백 수천 개의 물음표들이 던져졌지만 이 모든 물음에 정확한 답을 내릴 수는 없었다. 나 또한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기에, 이 시대의 눈으로 해석하는 것일 뿐. 다만, 이 연구를 통해 자칫하면 무관심하게 흘러갈 수 있던 사건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볼 수 있었고, 더 정확하게는 같은 분과 선생님들을 통해 잘 들여다보는 방법을 배웠다고 생각하며 그것은 내게 소중한 경험이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참고문헌

- 구정화(2018). 사회과교육에서 혐오표현 관련 교육에 대한 시론. **시민교육연구** 50(3), pp.1-22
- 석승혜·장인식(2006). 한국사회의 마이너리티 생산과 차별태도. **한국사회**, 17(1), pp.81-122.
- 오윤정(2021). 배려교육을 통한 혐오표현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찬호(2016). 한국에서 혐오 발언을 제재할 수 있을까?. **시민과 세계**, 29, pp.249-257
- 유리(2018) 혐오에 대한 인성교육으로서의 문학교육 방안 연구. **새국어교육**, 117, pp.31-54
- 이종일(2017). 사례 분석을 통한 한국 혐오스피치의 특징. **사회과교육연구**, 24(4), pp.51-73.
- 이혜정·민윤·박진아·이신애·김아미·남미자·이정연(2019). **혐오, 교실에 들어오다_학교 안 혐오 현상의 실태와 대책**. 서울:살림터
- 정재원·이은아(2017). '혐오'에서 '공전'으로: 교양교육의 역할과 여성주의 페다고지.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20), pp.229-251
- 정재원(2019). 혐오사회와 공존의 시민성 교육: 시민교육 수업사례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1), pp.99-118
- 최종렬(2020). 코로나 19와 가치 일반화. **오늘의 문예비평**, pp.30-31.
- 홍성수(2019). 차별금지법상 차별적 괴롭힘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59, pp.1-28.
- 홍성수(2019). 혐오표현의 해악과 개입의 정당성: 금지와 방치를 넘어서. **법철학연구**, 22(3), pp.27-64.
- Berbnar, B.(2019). 180GRAD: Geschichten gegen den HAss. 이승희 역(2021). **혐오없는 삶**. 서울: 판미동
- Nussbaum, M. C.(2006). Hiding from Humanity. 조계원 역(2015). **혐오와 수치심**. 서울: 민음사.

참고 영상자료

- 차별, 폭력의 선전과 선동에 대한 이해

<https://www.youtube.com/watch?v=-HY62NCqB4I>

- 차이나는 클래스 강의 중 아시아 혐오

<https://www.youtube.com/watch?v=hJMfG3B9KbM>

- 세바시 790회 혐오표현은 어떻게 사회를 파괴하는가

https://www.youtube.com/watch?v=veicmwanP_E